

근거기반간호 - 임상간호연구결과

임상에서 간호중재 적용한 실험연구 활발 간호사-교수 산학협력연구 크게 늘어

병원간호사회 학술지 '임상간호연구' 분석결과

임상간호사들이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중재를 적용하는 실험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와 간호대학 교수가 함께 하는 산학협력연구도 활성화되고 있다.

이는 병원간호사회가 1995년 창간해 발간하고 있는 학술지 '임상간호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에서 확인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임상간호연구'에 게재된 논문 총 268편을 분석했다. 책임연구원은 김연희 서울아산병원 간호본부장(병원간호사회 편집위원장)이다.

분석결과 논문의 제1저자는 간호사 66.4%, 교수 29.2%로 나타났다. 간호사는 대부분 임상에 근무했다. 교신저자는 교수 59.9%, 간호사 30.2%였다. 제1저자의 소속기관 소재지를 보면 서울이 56.7%로 절반 이

상을 차지했으며, 서울 이외의 지역이 43.3%였다.

논문은 대부분(95.9%) 공동 연구였으며, 참여한 연구자 수는 평균 8.8명이었다. 병동 또는 팀 단위의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공동연구가 많이 이뤄진 것으로 해석됐다. 단독연구는 4.1%에 불과했다.

공동연구의 형태를 보면 임상간호사와 교수가 함께한 산학협력연구(68.7%)가 가장 많았다. 이는 1995~2005년 '임상간호연구' 게재논문 분석결과와 비교할 때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간호실무와 이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결과로 해석됐다. 하지만 다학제 또는 다기관 협력연구가 거의 없는 점은 앞으로 개선할 과제로 남았다.

연구비 수혜 논문(36.6%)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병원간호사회, 병원, 대학, 정부연구

재단, 학회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연구유형을 보면 양적연구(98.6%)가 대부분이었다. 조사연구 등 비실험연구가 67.0%, 유사실험설계 등 실험연구가 33.0%였다. 다른 간호학회지에 비해 실험연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질적연구는 4편에 불과해, 앞으로 질적연구 방법과 논문작성법 등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험연구에서 적용된 간호중재는 주로 간호기술영역과 건강교육영역에 관한 것이었으며, 각 영역별 간호중재는 다음과 같다.

△간호기술영역(42.6%)= 운동, 영양요법, 체위, 구강관리, 약물, 마사지 등 △건강교육영역(32.7%)= 개인 및 집단 정보제공, 인터넷 정보중재 등 △심리사회복지영역(17.7%)= 이완요법, 지지간호, 상담, 사회적 지지, 의사소통 등 △보완대체요법영역(5.0%)= 향요법, 수지침, 전기자극치료, 원예요법, 기공제조 등 △간호행정영역 및 기타(3.0%)= 프로토콜, 매뉴얼 등.

김숙현 기자 shkim@

집단영화치료 프로그램 개발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능력 향상 효과

간호대학생들에게 '집단영화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능력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하강 목포가톨릭대 간호학과 교수와 김정숙 남부대 간호학과 교수의 연구논문 '집단영화치료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에서 제시됐다. 논문은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016년 12월호에 게재됐다.

김하강 교수는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 수련감독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영화치료 강의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김정숙 교수는 한국영상응용연구소 영화치료감사 자격을 갖고 있다.

연구팀은 선행연구들을 문헌 고찰하고, 영화치료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집단영화치료 프로그

램을 개발했다. 영화치료전문가, 정신간호학 교수, 심리학 교수 등으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프로그램은 총 8회기로 관계형성단계(1회기), 탐색 및 성찰단계(2~4회기), 능력증진단계(5~7회기), 마무리단계(8회기)로 구성됐다. 각 회기 진행 시간은 120분이다.

영화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가족의 탄생' '키드' '인어공주' '미네편' 등 4편을 활용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대학생들은 영화를 소개받은 후 편집본(클립핑)을 감상했다. 영화감상 후 느낀 생각과 감정, 떠오르는 기억 등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생각을 정리한 후 다른 사람

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에 대해 발표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화 속 장면 역할극을 통해 감정표현, 적극적 경청 및 자기 주장훈련, 나-전달법 대화기술 등을 연습했다.

간호대학생들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자기와 비슷한 문제를 가진 등장인물에 이입되면서 자신의 문제를 투사시키고, 자연스럽게 영화내용과 등장인물에 관해 토의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다룰 수 있었다. 영화를 매개로 자신의 정서 및 가치관을 투사하고 정리했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한 후 집단의 지지 안에서 자신의 문제를 정리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집단영화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능력이 프로그램 참여 전에 비해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10분항 4점 척도, 대인관계는 25분항 5점 척도로 측정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보건진료소장회 '보건진료소장의 일기' 출간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앞장서는 보건진료소와 보건진료소장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출간됐다.

보건진료소장회는 올해 보건진료소 설치 36주년을 맞아 보건진료소와 보건진료소장의 역할을 알리기 위해 '보건진료소장의 일기'를 출간했다.

1981년 첫 보건진료소장이 배출된 이래 보건진료소장들은 지난 36년간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데 힘써왔다.

책은 보건진료소와 보건진료소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만화 형식으로 제작됐다. 보건진료소장의 삶의 애환과 지역주민과 함께 울고 웃었던 소중한 추억을 담았다.

책의 내용은 건강리마일에 새로 부임한 진유리 보건진료소장이 나선배 보건진료소장의 일기 속 과거로 돌아가며 겪게 되는 에피소드를 그렸다. 의료인력과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마을에서 가족 같은 마음으로 주민들의 일차보건의료와



상당 및 교육을 책임지며 화합의 장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다.

추천사를 쓴 김창영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안심'과 '안녕'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며 "책을 통해 국민들은 보건진료소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고, 보건진료소장들은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성희 전 보건진료소장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책 속의 주인공 진유리는 우리들의 자화상"이라며 "지역에 꼭 필요한 존재로 많은 업무를 감당해오신 모든 보건진료소장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02)2266-7677.

주혜진 기자 hjjo@

다큐멘터리 영화 '마리안느와 마가렛'

소록도에서 헌신한 벽안의 간호사 이야기

"모든 시작은 사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잠, 행복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의 천국 소록도에서 43년간 한결 같은 간호와 사랑을 실천한 벽안의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삶을 담은 영화가 나왔다.



휴먼 다큐멘터리 영화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4월 20일 개봉했다. 지난해 소록도 100주년을 맞아 기획 제작됐다. 이해인 수녀가 내레이션을 맡았다. 러닝타임 78분.

마리안느 스피거(83세)와 마가렛 피사백(82세)은 오스트리아 출신 간호사다. 구호단체 다미안재단을 통해 마리안느는 1959년, 마가렛은 1962년 소록도에 간호사로 파견됐다. 공식적인 파견기간이 끝난 뒤에도 자원봉사자로 소록도에 남아 반세기 가까운 세월동안 아낌없는 사랑을 실천했다.

20대에 처음 소록도를 찾았던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70대 노인이 돼서야 소록도를 떠났다. 제대로 일할 수 없어 오히려 부담을 줄까 두려워 떠난다는 내용의 편지만 남긴 채,

영화에서는 소록도의 한센인들, 함께 활동했던 의료인들의 생생한 육성을 통해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향기로운 삶을 돌아본다. 현재 오스트리아에서 살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도 담겼다. 간호사, 암마, 소록도 할매 등 두 사람을 부르는 이름은 저마다 달랐지만 그 모든 부름은 '사랑' 그 자체였다.

국립소록도병원에는 2006년 두 사람이 생활했던 공간을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집'으로 명명했다. 이곳은 한센인들이 겪었던 아픔을 함께 나눴던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희생과 봉사의 상징적인 주역으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6년 등록문화재 제660호로 지정됐다.

최수정 기자 sjchoi@

보건의 날 간호사 표창

제45회 보건의 날을 맞아 간호사들이 표창을 받았다. 시상식은 4월 7일 열린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됐다.

국민포장을 조정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받았다.

대통령 표창을 신순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관악지사장과 홍경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지역보건실장, 국무총리 표창을 김혜숙 부산시 건강증진과 실무사무관이 받았다.



국민포장 조정숙



대통령 표창 신순애



대통령 표창 홍경수



국무총리 표창 김혜숙

무하며 국민 건강수명 향상과 건강행태 개선 등 국가건강증진종합계획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에 기여해왔다. 보건소 중심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체계 구축, 지역특화건강증진사업 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맡아 국민보건증진에 이바지했다.

0... 김혜숙 부산시 건강증진과 사무관은 1988년 공직에 입문해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다양한 업무를 맡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시민건강 증진과 부산시 건강정책 개발 등에 이바지해왔다. 부산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역맞춤형 주민주도 마을건강센터, 민간-공공의료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맡아 수행했다.

김숙현 기자 shkim@

인사 서울시보라매병원 신호연 간호부장

서울대병원운영 서울시보라매병원 간호부장에 신호연 서울대병원 수술간호과장을 승진 발령했다. 4월 15일자.

신임 신호연 간호부장은 서울대간호대학을 졸업했으며, 동대에서 간호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83년 서울대병원에서 임사해 출근 몸담아 왔으며 응급실·수술실·간호행정팀 수간호사, 보험심사팀



장, 수술간호과장 등을 지냈다. 신호연 간호부장은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며, 소통과 화합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간호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숙현 기자 shkim@

보수교육 프로그램 정보 안내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 edu.kna.or.kr

간호사의 열정으로 한번더 JUMP!

20년 전통의 간호교육연수원이 간호사들의 새로운 도전과 함께합니다.

간호직공무원 / 보건진료직공무원 / 보건직공무원 / 보건복지부공무원
보건교사 / 공사공단 취업
RN-BSN / NCLEX-RN / 병원코디네이터

무료상담 080-529-0909 | www.ganhohak.co.kr

간호사를 위한 온라인 전문 교육원 **간호교육연수원**